

집단 예술치료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에 미치는 효과

김 미 옥(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 이 미 숙(가톨릭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예술치료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려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보다 많은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며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 발달과 자아개념의 형성 등 여러 발달 과업을 수행하고 습득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 이때, 한부모가정 또는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과 배려대상 아동들은 발달과업 수행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불안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아동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신뢰감과 성공감을 갖기가 어려워지고 의욕이 저하되어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집단미술 및 예술치료프로그램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불안 감소에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또래집단의 창조적 예술활동으로 접근하는 예술치료프로그램은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대인불안을 낮출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독립변수인 집단 예술치료프로그램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총 20회로 구성하였다. 각 회기별로 게임, 동작, 거울, 우드락, 폴라쥬, 흙, 종이, 물감, 노래, 악기연주 등 다양한 예술매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초등학교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9개월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및 사후검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Coopersmith(1967)와 Pope(1998) 등을 참고한 김지연(1999)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대인불안 척도는 주영숙(1985)의 일반 불안검사와 회피 및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밖에 HTP그림 투사검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에 대해 사전 사후 차이 검증은 SPSSWIN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HTP그림 투사검사는 김동연 외 2인(2002)의 'HTP와 KHTP 심리진단법'에 기초하여 분석 진단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의 경우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 실시 후에 자아존중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아졌다. 대인불안은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에 유의미하게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TP그림 투사검사에 대한 분석 결과,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에 대부분의 아동들은 그림 표현에서 전체적으로 필압이 안정적 구조로 나타났으며, 집, 나무, 자아상, 어머니상에 대한 부정적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집단 예술치료는 또래와의 여러 창조적 활동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개성, 감정을 표출시킴으로써 대인관계의 불안을 낮추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여 긍정적인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9개월의 단기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저소득층 및 배려대상 아동들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집단 예술치료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다.